



이우환, 이승택 등 노장작가 해외 미술계 주목

올드보이의 귀환

응답하라! 7080 미술계 원로들이여

백남준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초대를 받은 이우환 작가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60년 넘게 재야 작가로 살아온 이승택은 83세가 된 지금 세계적인 전위작가로 떠올랐고, 파리에선 유럽 추상미술의 거장인 고암 이옹노의 탄생 1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화려한 팝아트와 미디어 설치, 극사실주의 회화가 지난간 자리에 1970년대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들어있고 있다.

글 박찬은 기자 사진 갤러리현대, 아라리오갤러리, 국제갤러리, 이옹노 미술관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이승택
(드로입) 1974,
300×700cm, 노끈 Cords



1. 박서보 (1931~) ©Kukje Gallery
2. 알렉산드라 먼로 현 구겐하임 미술관
삼성큐레이터와 함께 선 이우환(1936~)
©Kukje Gallery
3. 하종현 (1935~) ©Kukje Gallery
4. 이우환 (1935~) <From Point> 1983 oil on
canvas 194×260cm(사진 김상태)
5. 정창섭(1927~2011) ©Kukje Gallery

'정신' 중요시하는 한국 단색화에 주목하는 서양 미술계

데미언 허스트, 무리카미 다가사를 소개해 온 파리의 페로탱 갤러리, 지난 10월 6일(현지시간) 이곳에서는 한국 화가 박서보(83)의 회고전이 시작됐다. 페로탱에서 한국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것 자체가 화제였다. 뉴욕 블럼앤파 갤러리에서는 하종현(79) 작가의 회고전이 12월까지 열린다. 이들 외에도 정상화(82), 이우환(78) 등을 비롯한 단색화 계열 작가들과 윤명로(78), 이승택(82) 등 이방가르드 작가들이 현재 인생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 이우환(78)의 프랑스 베르사유궁 전시를 기점으로 동시대인 1970년대 거장들의 작품이 한꺼번에 재조명 받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관계자는 별로 없다. 점점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단색화 화가들을 보라. 지난 9월 국제갤러리는 김기린,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이우환, 박서보, 윤형근 등 평균 연령 75세 이상의 원로 화가 7인이 참여한 <단색화의 예술> 전시를 열었다. 1970년대 단색화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일곱 작가의 작품으로 서구사회의 성장 제일주의를 구가했던 사회에서 순수한 혁신을 꿈꾸던 이들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것이 목표. 이우환의 반복되는 선과 점의 행렬, 박서보의 반복되는 선묘, 정창섭의 반복되는 한지의 겹침, 하종현의 반복되는 배암(背壓)의 행위, 김기린의 반복되는 물감의 분무(噴霧) 행위는 화폭과 자아의 합일을 이루는 일종의 '수행(performance)'을 드러낸다.

“한국 단색화 인기, 일시적 현상 아니조”

“10월 런던 프리즈 매스터스에서 선보인 하중현, 이우환, 정창섭, 김기린 등 한국의 60~80년대 단색화 작품은 VIP 프리뷰 첫날 주요미술관들의 작품 소장 제의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난 7일 뉴욕에서 열린 하중현 작가의 오프닝 역시 뉴욕미술계에서 구겐하임 미술관 갤러가 열었던 시기라 미술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지요. 내년에는 하중현과 박서보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교수인 미술사가 조언 기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화단의 현상이 아닌 서구미술계에서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근현대 회화를 주목하게 된 주요한 계기’이며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현 단색화 작가들의 적극적인 국제 활동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갤러리 전민경 큐레이터



하중현 1935년생. 두꺼운 물감을 촘촘히 짜인 미대 뒷면에서 밀어 넣는 배압법으로 작업한다. 밀가루, 산문, 종이, 철조망 등과 미군이 군량미를 담아 보내던 포대자루를 사용한 것은 군사정부 시절,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감춰야만 했던 내면의 울분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

정창섭(1927~2011) 물감 대신 한국의 전통 닥을 물에 불린 후 주무르고 반죽하는 과정을 거치며 제작하는 ‘그리지 않은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캔버스에 종이를 풀고 고정시키기 전, 종이가 물에 불려진 시간에 따라 명도와 채도가 변화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색감이 표현된다.

박서보 1931년생. 한국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서보는 전통한지 위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명상을 통해 수신을 일깨우는 행위를 지향한다. 오래 물에 불린 한지를 캔버스 위에 쌓아 연필로 100번 이상 선을 그은 다음 굳은연색을 입힌다. 회화지만 조각 같은 입체감이 생기는 이유다.

이우환(1936년생) ‘이우환’ 하면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점을 찍는 행위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습득해온 전통 서예와도 연결된다.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간 이우환은 한국과 일본의 미술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이 두 곳에서 단색화를 전세계 미술인들에게 소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이우환 〈관객향-대화〉 2014



이우환 〈관객향-대화〉 2014

“국제갤러리의 단색화 기획전과 갤러리현대의 이승택 개인전에 이어 아리리오갤러리는 윤명로 개인전을 열었다. 외형만 그럴싸한 비주얼 아트 대신 기존의 미술 질서를 허물고 시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철학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1970년대 단색화와 전위 작가들이 최근 해외 미술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아직 제대로 된 독립적인 근대미술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태어나 이름과 말을 제대로 쓰지 못하던 일제시대를 거쳐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온 7080 거장들의 ‘정신’, 내용의 깊이에 해외 화단이 화답한 것이다.”



photo by 김용관
©Kukje Gallery

베르사유 궁으로 출퇴근 하는 작가, 이우환

이우환의 조각은 17세기 베르사유의 바로크 정원을 디자인한 당대 최고의 정원예술가 앙드레 르노트르의 300년 전 광경을 전혀 망가뜨리지 않은 채, 그 인공적 완벽함을 자연으로 치환시켰다. 2008년부터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등 해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1명씩을 수혈 받아온 베르사유궁이 올해는 78세의 노작가 이우환(1936~)을 선택했다. 6월 17일부터 열린 <이우환 베르사유> 전에서는 산업화의 산물인 ‘철판’과 오랜 세월 자연의 흔적이 묻어나는 ‘돌’을 하나의 장소에 배치시켜, 관계가 보여 주는 열린 구조에 주목하는 그의 버릇이 드러난다. 높이 12m, 길이 30m의 철판은 궁전을 배경으로 마치 거대한 아치처럼 구부려져 있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돌은 그대로의 물성을 드러내면서도 의미를 재탄생시킨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서구 미니멀리즘과 흡사하지만, 사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여백의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은 다분히 동양적이다. 화가나 조각가이기 이전에 작가이자 비평가이기도 한 이우환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는 따라서 ‘철학’이 필요하다. 전시를 기획한 알프레드 파크망 전 풍피우 센터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로 그는 동시대 미술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환 1936년생, 벨기에 왕립미술관, 요코하마 미술관, 베니스 필라조 그리시,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기진 바 있다.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 <이우환: 무한의 제시>를 개최했고, 201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가졌다.